

자매들을 위한 공과

제37과

구약에 있는 여자들의 본과 본보기(9) — 미리암과 슬로브핫의 딸들

성경: 민 12:1-15, 27:1-11, 36:1-13

- I.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였다. 모세와 결혼한 그 구스 여자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슬러 말하였다. ... 구름이 천막 위에서 떠나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돌아보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다. ... 그리하여 미리암은 칠 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혔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진군하지 않았다.” — 민 12:1, 10, 15.
- A.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혈육이었고 둘 다 신언자였다 — 출 4:10-16, 6:30-7:1, 15:20.
1. 여기에서 그들이 한 말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모세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겼다는 것과 모세가 크게 존경받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명백한 실수를 구실 삼아 그를 비방했지만(민 12:1), 이 일의 실질적인 요점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3. 비록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일에 쓰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시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일에서 모세와 경쟁하였다.
- B.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슬러 말한 것은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거슬러 말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분의 대표 권위, 곧 이 땅 위에 있는 그분의 대리 권위로 정하셨다 — 출 3:10-18 상, 7:1.
- C.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에 따르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복종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역하였다.
- D.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회막 입구에 서시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자” — 민 12:5.
1.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만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권위를 만지거나 거스르거나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이다.
- E.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이었다.
1.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아론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미리암이 이 거역을 주도하고 부추긴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2. 더구나 여자가 거역한다는 것은 특별히 부적절한 일이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여자에게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시어 그들이 미리암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다 — 비교 고전 11:3, 엡 5:22-24.
- F. 회막은 칠 일 후에야 진행했다. 우리 가운데 거역과 비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회막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 민 12:14-15.
1. 비방하는 말이 심판받을 때까지 구름 기둥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2. 권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G. 비방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속에 거역의 영이 있다는 증거이다. 비방은 이러한 거역이 발아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결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1.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기보다 앞선 이들을 거슬러 말한다. 그들은 교회 안의 책임 형제들을 거슬러 말하면서도 이 문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지 못한다.
 2. 어느 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분별할 것이다. 즉 그들이 나병에 걸렸으므로 그들과 말하지 않을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것이 우리 형제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문제임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란다. 만일 우리가 권위를 만났다면, 너무나 많은 일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4. 그 후에는 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바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죄판결 하시는 죄는 사람의 거역이다.

II.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 여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그 여인들에게도 유업으로 소유할 것을 주어야 하며, 그 여인들의 아버지의 유업이 그 여인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민 27:7) “그 딸들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단,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문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36:6)

- A. 슬로브핫의 다섯 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의 예표이다. 모든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자이며 약한 이들이다(벧전 3:7). 그러므로 그들의 요구(민 27:4)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1.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기들의 지파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유업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보다 더 힘 있는 친척을 찾아서 교통하는 길을 취하였다 — 민 27:4.
 2. 약한 믿는 이들이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지키는 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 B. 성경에서 유업은 계보에 따라, 곧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교통에 따라 결정된다 — 민 27:1.
1. 슬로브핫의 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문 중 하나에 속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합당한 근원에 속한 생명과 교통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이것은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합당해야 한다는 것, 즉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요 1:12-13.
- C. 조상의 가문은 교회를 상징한다(엡 2:19). 우리가 우리의 유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의 풍성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또한 반드시 교회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생활과 생명의 교통을 포기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상속받을 권리를 자연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 D. 예표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소유하려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으려는 갈망,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신 그리스도(골 1:12, 요 1:17)를 상속받으려는 갈망을 상징한다. 이렇게 신성한 유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 E. 슬로브핫의 다섯 딸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지파 밖에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 — 민 36:2-3, 6-7.
1. 하나님은 그 딸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들의 아버지 지파의 가문 안에서만 결혼하게 하셨다.
 2. 이것은 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민 36:6 각주 1, 비교 갈 5:13.
 3.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유업을 굳게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다.”(민 36:7)라는 말씀은 우리의 유업이신 그리스도는 양도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유업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원칙적으로 어떤 믿는 이가 믿지 않는 이와 결혼하는 것은 유업이신 그리스도를 양도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 민 36:7 각주 1, 비교 고후 6:14.
 5.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지파’, 즉 그리스도와 교회 밖에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 비교 고후 6:14.
- F. 오늘날 우리는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는 더 강한 이들이 있다. 교통을 통하여, 특히 활력 그룹 안에서 약한 이들은 더 강한 이들에 의해 강화되어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업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제38과

구약에 있는 여자들의 본과 본보기(10) — 이세벨과 에스더

성경: 왕상 16:31-33, 18:13, 21:1-16, 25-26, 왕하 9:22, 계 2:20, 에 2:5-20, 4:13-16, 5:17, 7:1-10, 8:1-13, 17

I.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 왕상 16:31.

- A. 이방 땅 시돈에서 온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다. 이세벨은 아합의 집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내쫓겨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 — 왕상 16:29-33.
1.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가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 절하였다.” — 왕상 16:31.
 2. “이세벨이 여호와와 신언자들을 죽일 때에” — 왕상 18:13.
 3. “그러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맞으십니까? 이제 일어나시어 음식을 좀 드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시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아도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거절한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이제 나봇은 살아 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 — 왕상 21:7, 15.
 4. “그(아합)는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 때문에 자신을 팔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였다.” — 왕상 21:25.
 5. “그대의 어머니 이세벨이 음행과 마술을 그토록 많이 하였는데” — 왕하 9:22.
 6.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다. 이세벨은 소식을 듣고 눈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치장한 뒤 창밖을 내다보았다.” — 왕하 9:30.
 7. “그 여자(이세벨)는 여신언자로 자처하면서 나의 노예들을 가르치고 미혹시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을 먹게 한다.” — 계 2:20.
- B. 아합의 이교도 아내였던 이세벨은 변절한 교회를 상징한다 — 계 2:20-23.
1. 이세벨은 이교도 배경의 출신이고 이교도적인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경배 안으로 가져왔다 — 왕상 16:31, 19:1-2, 21:25-26, 왕하 9:7.
 2. 변절한 교회의 원칙은 이교도적인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혼합시키는 것이다. 변절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경배하도록 돕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그 자신의 이교도적인 방식대로 경배하게 한다.
 3. 변절한 교회는 그 역사의 시작부터 이교도의 것을 흡수해 왔다. 어디에 가든지 그 교회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동화한다.

II. “그때 도성 수사에 모르드개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 있었는데, ... 그는 자기 삼촌의 딸인 하닷사 곧 에스더의 수양아버지였는데, 에스더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이다. ... 에스더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자,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데려다가 자기 딸로 삼았던 것이다.” — 에 2:5, 7.

- A.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은밀한 돌보심 안에서 에스더, 곧 부모 없는 한 유대인 처녀를 일으키시어 최고의 왕의 왕후로 즉위하게 하셨다. 그 여인의 유대식 이름은 하닷사였고 ‘화석류나무’를 뜻한다. 그 여인의 페르시아식 이름은 에스더였고 ‘별’을 뜻한다 — 에 2:1-18.
1. 하만이라는 이름의 아각 사람이 중용되어 그의 지위가 왕과 함께 있는 모든 대신보다 가장 높이 올랐다(틀림없이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 부추긴 결과였다.) — 에 3:1.
 2. 하만의 악한 의도는 모든 유대인을 없애 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다 — 에 3:5-15.
 3. 에스더가 4장 1절부터 8장 2절까지에서 우리는 에스더가 왕을 친밀하고도 가깝게 접촉하는 것을 통해, 모르드개가 하만의 음모에 대항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본다.
 - a.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회답하라고 말하였다. ... ‘이번에 왕후께서 침묵하시면, 유대인은 다른 어떤 데서 해방과 구출을 받겠지만 왕후와 왕후의 아버지 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왕후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

에 4:13-14.

- b.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하였다. ‘가셔서, 수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아 저를 위해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삼 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도 제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대로 하지 않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 — 에 4:15-16.
 4. 왕후 에스더는 왕과 하만이 참석한 그녀의 잔치에서,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악한 대적이자 원수임을 지적하였다. 왕은 즉시 하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마련해 놓은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라고 했다 — 에 7:1-8:2.
 5. 왕은 모르드개를 통하여,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그의 제국을 통틀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원수를 없앨 권한을 주는 칙령을 공포하였다 — 에 8:3-14.
 6. 도성 수사(Susa)성은 환호와 기쁨이 가득하였고, 유대인들에게는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었다. 왕의 칙령이 전달된 각 지방, 각 성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였고 잔치하며 좋은 날을 보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방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속에서 일어나 유대인이 되기도 했다 — 에 8:15-17.
 7. 아하수에로왕의 때에 왕후 에스더와 왕의 다음 서열인 모르드개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은 제국 전역에 걸쳐 자신의 원수들을 모두 없애 버렸다 — 에 9:1-16.
 8. 큰 승리를 거둔 유대인들은 자기 원수들에게 당당히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아달월 열나흘날과 열닷새날을 부림절로 정하여 세웠다.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는 전권을 가지고 기록하여 부림절을 정하고 세운 것을 확정하였다 — 에 9:17-32.
- B. 에스더는 하만, 곧 감추어진 육체를 처리하도록 훈련받았다.
1. 하만은 아각 사람, 곧 사무엘이 토막 낸 아말렉의 왕 아각(삼상 15:33)의 후손이었다. 아말렉은 육체를 상징한다(출 17:10-16, 갈 5:16-17, 24).
 2. 하나님은 하만으로 상징된 육체를 미워하신다. 에스더기에 따르면, 육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훼손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감추어진 방식으로 일한다. 오늘날 하만인 육체는 교회 안에서 일하려고 애쓴다.
 3.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는 결국 드러났고 좌절되었다. 에스더의 도움을 통하여 하만은 죽음당하였다.
- C.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많은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분은 다만 혼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구출해 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높임을 받을 만한지의 여부이다 — 에 4:14.

제39과

신약에 있는 여자들의 본과 본보기(1) —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 눅 1:26-38, 46-56, 요 19:25-27, 행 1:14

I.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의 복종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 눅 1:26-38.

- A.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의 복종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마리아와 같은 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위임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 B. 우리가 이 기록을 읽기는 쉽다. 그러나 가령 우리 가운데 어떤 젊은 자매가 오늘 밤 그러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자.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가브리엘, 당신은 내가 이미 어떤 남자와 약혼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한단 말입니까?”
- C.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그대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 눅 1:38.
 - 1. 이것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지극히 큰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 마리아는 매우 큰 대가를 지불했다. 즉 자신의 온 존재를 값으로 지불했다.
 - 2. 그리스도를 낳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값싼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D. 우리는 신약의 기록에서 자매들의 위치를 보아야 한다. 자매들의 첫 번째 위치는 주님의 출생과 관련된다.
 - 1. 주님의 출생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인류 안으로 이끌어 오는 것이다. 모든 자매는 교회 안에서의 자신들의 위치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낳아 주는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 2.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은 그 영계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 눅 1:35.
 - 3. 여러분이 봉사 그룹 안에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낳아야 한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방문하거나 자매들과 교통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낳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낳는 문제이다.

II. 마리아의 시적 찬양은 그녀가 구주께서 육체를 입으시기 위한 통로가 될 자격이 있는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것과,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 안에서 자라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 눅 1:46-56.

- A.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에서 우리는 사람-구주의 어머니의 찬양을 본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려고 왔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았을 때 마리아를 축복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이 축복에 화답하였다.
- B. 마리아의 시적 찬양은 구약에서 인용한 많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마리아가 구주께서 육체를 입으시기 위한 통로가 될 자격이 있는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또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 안에서 자라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 1. 비록 마리아는 젊은 여인이었지만, 구약에 관해 매우 잘 알았고 구약의 절들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다. 사실상 그녀의 찬양은 성경에서 인용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 2. 확실히 그녀는 태어나실 구주를 잉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 C.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사람-구주의 잉태에 관한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였다.
 - 1. 성경의 많은 절들이 그녀의 존재 안에 흡수되어 있었다.
 - 2. 그러므로 그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제때에 쏟아 낼 수 있었다.
- D. 마리아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가지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지식이다.
 - 1.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마리아에게 배워야 한다.

2.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어떤 것을 산출하기 위해, 심지어는 영적인 의미에서 주 예수님을 ‘인태하여’ 그분을 낳기 위해 주님께 쓰이고자 하는가?
 3.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됴으로써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비교 골 3:16.
- E. 먼저 마리아의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였다. 그런 다음 그녀의 혼은 주님을 찬양하였다(직역하면, 확대하였다. 눅 1:46 각주 2—역자 주). 그녀는 혼을 인도하는 그녀의 영 안에서 살고 행했다.
1.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에서 마리아는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하나님 나의 구주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 것은”이라고 말했다. 먼저 마리아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기뻐했으며, 그런 다음 그녀의 혼이 주님을 찬양하였다.
 2.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찬양은 그녀의 영에서 시작되어 그녀의 혼을 통해 표현되었다. 그녀의 영은 구주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고, 그 결과 그녀의 혼은 주님을 확대하기 위해 그러한 기쁨을 나타냈다.
 3. 마리아는 혼을 인도하는 그녀의 영 안에서 살고 행했다. 그녀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 것은 구주이신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이며, 혼이 주님을 확대한 것은 여호와, 곧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주님을 높였기 때문이다.
 4.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아는 것에 있어서 마리아가 체험한 것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누리면서 그분에 대하여 크게 기뻐할 때,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찬양할 것이다.
- F.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섬긴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1.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로 그분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인상을 받아야 한다.
 2. 그와 반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방면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비교 빌 1:20.
 3.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데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우리의 결정들과 연관된다. 이 모든 것들에서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한다.
- G. 마리아는 영으로는 하나님 그녀의 구주에 대하여 크게 기뻐했고, 혼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일 수 있었다. 우리는 분명 그녀에게서, 우리의 영으로는 주님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고, 우리의 혼으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III.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동안, 그분은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시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 ‘여인이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십시오, 그대의 어머니이십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 요 19:26-27.

- A.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생명을 옮겨 주시기 위해, 즉 그분의 생명을 제자들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 B. 이러한 생명의 전달을 통해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의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었으며, 그분의 어머니가 이 제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IV. 사도행전 1장 14절은 “그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라고 말한다.

- A.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제자들이 여인들과 마리아와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는 말을 듣는다.
- B. 여기에서 마리아는 신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다.

제40과

신약에 있는 여자들의 본과 본보기(2) —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리아의 자매인 마르다

성경: 요 11:1-40, 눅 10:38-42, 요 12:1-2

I.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8절까지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의견을 본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의견들을 멈추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

- A.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나사로를 통해 주님의 부활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명의 능력의 이러한 표현은 사람의 의견에 의해 방해받았다.
1. 나사로는 병들었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사로를 병들어 죽도록 의도하셨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사람들을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 주시기를 청했다.
 2. 무엇보다도 먼저, 그 두 자매는 주님께 말을 전하는 방식에서 그들의 의견을 표현했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게 했다 — 요 11:3.
 3. 그러한 말에는 의견이 가득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이러한 의견들을 처리하기로 결심하셨다.
 4. 그러므로 그분은 그러한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들을 더 머무셨다(요 11:6). 주님은 계시던 곳에서 나사르가 죽을 때까지 머무셨다 — 요 11:14.
- B. 주 예수님께서 나사르가 있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와서 그분을 뵈고 “주님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요 11:21)라고 말하며 즉시 자기 의견을 표현했다 — 요 11:21.
1. 마르다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주님은 왜 더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올 전에 오셨더라면 오빠가 지금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대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요 11:23)라고 말씀하셨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대답했다 — 요 11:24.
 3. 주님께서 나사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나사르가 바로 그날 부활할 것임을 의미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부활을 마지막 날까지 미루었다.
 4. 마르다처럼 때때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영똥하게 설명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읽은 다음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체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어느 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 C. 그때 주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라고 말씀하셨다 — 요 11:25-26.
1. 주님은 그녀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는 시간의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대의 오빠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2. 이어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라고 물으셨고, 마르다는 “예,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 요 11:27.
 3. 그녀의 답변은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아니었다. 그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다.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낡은 지식 때문에, 그녀는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4.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의견들을 가진 이유는 그들에게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들과 속생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즉시 자신의 의견들을 나누기 시작한다.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교리는 끝없는 의견을 낳는다.
- D. 주님은 무덤으로 가셨을 때, 그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마르다는 자신의 의견으로 주님을 방해했다.
1. 그녀는 “주님, 사 일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요 11:39)라고 말했다. 그녀는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2. 주님은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생명이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수많은 인간적인 의견에 직면하신다.
- E. 우리가 자신의 의견에 머물 때, 우리의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는 데서 멀어지게 된다. 우리의 의견들이 정복될 때, 우리는 주님 자신에 대한 충만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기 쉽다.
- F. 주님의 능력이 표현될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견 때문이다.
 1. 너무 많은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점과 의견에 따라서만 일들을 판단한다.
 2. 종종 주님의 부활 능력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 표현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려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관점과 의견을 제쳐 놓아야 한다.
- G.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공과를 배워 우리의 의견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포도주가 떨어졌든, 아니면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든, 우리는 주님께 조언해 드릴 필요가 없다. 다만 주님께 지위를 내어 드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시기를 들어야 한다.

II.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의견이나 관념이나 이해에 따라 섬기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그분의 갈망과 애호에 따라 그분을 섬겨야 한다 — 눅 10:38-42.

- A.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마르다는 시중드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눅 10:40) ‘분주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주변 여러 방향으로 주의가 쏠리다’를 의미한다.
- B. 마르다는 주님을 옆에서 지켜보며,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했다 — 눅 10:40.
- C. 주님은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셨다.
- D.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이들이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분의 갈망을 알기 위하여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본다 (눅 10:39) — 비교 출 21:5-6, 사 50:4-5, 요 5:30.

III.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고”(요 12:2하). 우리는 마르다의 봉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 A. 교회생활 안에는 서로 다른 기능들이 있다. 교회의 봉사에는 세 종류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그 집에 있었던 세 사람, 곧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로 대표된다.
- B. 첫 번째는 마르다로 대표되는 봉사하는 기능이다 — 요 12:2.
 1. 모든 세기(世紀)에 걸쳐서 마르다는 불공평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르다를 경시했다. 마르다를 비난하지 말라.
 2. 우리는 마르다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르다가 시중을 들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봉사에 있어서 교회의 실무적인 일들을 반드시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3. 마르다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음식의 문제를 돌볼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음식을 마련하는 마르다가 필요하다. 우리는 마르다의 봉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4. 우리 모두는 그녀에 관한 관념을 반드시 바꾸어야 하며 그녀를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매들을 독려하여 마르다들이 되게 해야 한다.
- C. 우리에게 세 종류의 기능—봉사함, 증언함, 사랑함—이 있다. 우리에게 봉사와 증언과 주님께 부여된 사랑이 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항목이 교회생활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제41과

신약에 있는 여자들의 본과 본보기(3) —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리아의 자매인 마르다

성경: 눅 10:38-41, 마 26:6-13, 요 12:1-8, 고후 5:14-15, 뵤전 1:8

- I.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언급한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거역의 사상을 전달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타고난 생명을 가리킬 것이다.
- A. 마르다라는 이름은 아마도 아람어에서 온 말로 ‘그녀는 거역적이었다’를 의미한다. 헬리어 마리아(Mary)는 히브리어 미리암(Miriam)에 해당하는 마리아(Maria)로서 ‘그들의 거역’을 의미한다 — 뵤전 12:1, 10-15.
 - B. 주님의 구원은 이 이야기에서 묘사된 대로 거역적인 사람들을 복종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다. 구약의 미리암처럼 거역적인 사람이 신약의 마리아처럼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
- II.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마르다는 시중드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눅 10:40) ‘분주하다’로 번역된 헬리어는 ‘주변 여러 방향으로 주의가 쏠리는 것’을 의미한다.
- A. 마르다는 주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했다 — 눅 10:40.
 - B. 주님은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셨다.
 - C.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이들이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참조 삼상 15:22, 전 5:1), 그분의 갈망을 알기 위하여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하심을 본다(눅 10:39).
- III.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는, 사람이시며 죄인들의 이웃이 되시는 구주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 준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시며 믿는 이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갈망과 애호를 보여 준다(38-42절).
- A. 구주께서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며, 주님께서 그분의 갈망과 애호를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B. 구주에게서 구원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주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갈망과 애호를 알아야 한다.
- IV. 우리는 주님의 갈망을 알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 A. 주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음식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그분의 갈망이 아니었다. 반대로, 그분의 갈망은 그분의 구원받은 이들이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
 - B. 주님은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잠히 그분과 함께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했다면 그들은 그분의 갈망과 애호를 알았을 것이다.
 - C.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후에 그녀는 그분의 죽음에 앞서 그분께 바를 향유를 준비하였다(요 12:3). 그녀는 구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이것을 알게 되었다. 구주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녀는 그분의 갈망과 애호를 알게 되었다.
- V.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에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그분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을 것이다. 바로 그때, 구주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다가오고 있었던 자신의 죽음이었다.
- A. 마리아는 그분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두 번 밝히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 참조 눅 9:22, 43하-45.

- B.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에 관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았다. 주님의 죽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후에, 그녀는 그분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분께 기쁨 바를 기회를 찾았다 — 마 26:12.

VI.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마리아의 이야기이다.

- A. 복음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전파해야 한다.
 - 1.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헌신을 위한 것이다.
 - 2.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해 주지만, 마리아의 애정 어린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감동을 준다. 이처럼 상호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복음 전파는 반드시 이것을 수반해야 한다.
- B.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많은 이가 그녀를 비난했다. 그들은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삼백 데나리온을 허비한 것이었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 많은 사람을 돌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불평했다 — 마 26:8-9.
- C. 제자들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허비라고 생각했다. 지난 이십 세기 동안, 수많은 귀중한 생명과 마음의 보물과 높은 지위와 황금 같은 장래가 주 예수님께 ‘허비되어’ 왔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고 그들의 드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들이 주님 위에 부은 것은 허비가 아니라, 그분의 달콤함에 대한 향기로운 증거이다 — 마 26:8 각주 1.
- D. 주님은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 마 26:13.
 - 1. 마리아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진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리아의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2.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한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복음을 듣기 좋아한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님을 믿은 후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포로와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 3. 사람이 오직 복음만을 전파하면, 어떤 위험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 한 면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 4. 바울은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고후 5:14)라고 말했다. 이것이 복음이다.
 - 5.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뒤이어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고후 5:15)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행한 일이었다.
 - 6.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7. 오늘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유일한 시간이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보배로운 것은 우리가 그분을 뵈지 않고도 오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 비교 벧전 1:8.